

제 1 교시

국어 영역

1

[1~2] 다음은 선생님과 학생 간 대화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학 생: (교무실에 들어서며) 선생님, 안녕하세요? ㉠ 학급 문집 준비 때문에 바쁘실 텐데,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선생님: 응, 괜찮아. 이리로 와서 앉아. 학생회장이라 요즘 동아리 축제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지?

학 생: (의자에 앉으며) 그렇지 않아도 동아리 축제 때문에 상의드릴 일이 있어서 왔어요.

선생님: 그래? 무슨 문제가 있니?

학 생: 네, 축제 때 동아리들이 사용할 장소 배정 문제 때문이에요. 특히 올해는 강당이 공사 중이라 사용할 수 없어서 특별실만으로 축제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장소 배정이 쉽지 않아요.

선생님: 그렇구나. ㉡ 아무래도 행사 장소에 따라 찾아오는 인원이 달라지니까 다들 좋은 장소를 배정받으려 하겠지.

학 생: 맞아요. 특히 공간이 넓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은 인기가 많지만, 공간이 좁고 찾아오기 힘든 곳은 서로 꺼리잖아요. 그래서 장소 배정이 쉽지 않아요.

선생님: ㉢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지. 그러면 행사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넌 어떻게 장소를 배정했으면 좋겠니?

학 생: 우선 연극이나 댄스 공연은 학생들이 많이 보러 오기 때문에 넓고 쉽게 찾을 수 있는 특별실은 공연 동아리에 배정했으면 해요. 하지만 전시 동아리 대표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예요.

선생님: 그럴 수도 있겠구나. ㉣ 그럼 전시 동아리 대표들을 설득해야 할 텐데. 연극이나 댄스 공연은 특정 시간에 많은 학생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해서 전시 동아리 대표들을 설득하면 어떨까?

학 생: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때나 관람이 가능한 전시 동아리들은 어떻게 장소를 배정하는 게 좋을까요? 처음에는 외진 곳을 배정받는 동아리에 학교 지원금을 늘릴까도 생각했는데, 동아리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추가적인 금전 지원은 힘들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 예산은 정해져 있어서 금전적인 지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힘들 거야. 이런 상황에서 공평하게 장소를 배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 생: 음……. 장소 배정을 해마다 바꾸면 되겠네요. 그러면 불만이 줄어들 것 같아요.

선생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당장 올해 외진 곳을 배정받는 전시 동아리에도 학생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학 생: (고민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_____
[가]

1.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의 입장을 고려하여 공손하게 말하고 있다.
- ② ㉡: 문제의 원인을 추론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다.
- ③ ㉢: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언어적 표현의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④ ㉣: 상대의 답변을 유도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 ⑤ ㉤: 상대의 말을 반복하면서 그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2.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아리마다 원하는 장소가 있으니까 동아리 특성과 상관없이 제비뽑기를 해서 정하는 게 좋겠어요. 공평한 방법이니 불만도 없을 거예요.
- ② 동아리 담당 선생님께 정해 달라고 하면 어떨까요? 동아리 축제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장소를 배정해 주시면 학생들의 불만이 적을 거예요.
- ③ 장소 배정을 해마다 바꾸는 게 좋겠어요. 올해 공간이 넓은 장소를 사용한 전시 동아리는 내년에는 공간이 좁은 곳을 사용하게 하면 될 거예요.
- ④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외진 곳의 동아리를 많이 방문한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어떨까요? 방문 스티커를 많이 받아 오면 도서상품권을 제공하는 거예요.
- ⑤ 축제 기간 전에 동아리마다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잖아요. 그때 외진 곳을 배정받은 동아리가 눈에 잘 띄는 홍보 게시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예요.

[3~5] 다음은 수업 중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력서 양식에는 증명사진을 부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꼭 붙일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력서에서 증명사진을 없애야 한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진 순서에 따라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입론과 확인 질문을 한 후, 각 측의 반박과 최종 변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입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 찬성 측 입론하겠습니다. 이력서에 증명사진이 꼭 필요한 걸까요? 저희는 이력서에서 증명사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력서는 구직자의 인적 사항과 경력 등을 적은 문서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 성형’이 유행하는 등 외모 지상주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력서의 증명사진도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증명사진이 없는 이력서는 과연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력서에 증명사진뿐만 아니라 국적, 연령, 성별, 나이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여 채용을 할 때 외모나 나이 등의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법적인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려는 노력을 함으로써 변화해야 합니다. 실제 몇몇 기업이 증명사진과 학력 등을 없앤 이력서를 받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력서에서 증명사진을 없애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에서 증명사진이 사라진다면 실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뽑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자: 예,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확인 질문을 해 주시고, 찬성 측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반대 2: 찬성 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반대 측 확인 질문하겠습니다. 배우나 모델, 서비스 업종처럼 채용을 할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직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2: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증명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직종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직종들에서도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기를 요구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증명사진 없는 이력서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제

[A] 외한 모든 나라에서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회자: 다음은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반대 측 입론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력서에 증명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일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지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

본적인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경제신문에서 대기업 채용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증명사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지원자의 건강, 자세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8.3%, ‘면접에서 지원자와 대조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36.2%를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력서에 증명사진을 붙이는 것이 외모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3. 위의 토론 과정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회자’는 논제와 토론의 진행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자문자답하는 방식으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③ ‘반대 2’는 상대의 주장을 요약하며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찬성 2’는 상대 의견을 일부 수용한 후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 ⑤ ‘반대 1’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 [A]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근거로 사용한 일부의 사례를 전체의 속성이나 특징으로 일반화하였다.
- ② 토론의 주제와 관련이 없는 문제나 상황을 근거로 삼아 결론을 내렸다.
- ③ 논의하는 문제의 결론을 다시 근거로 사용하여 주장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 ④ 상대방의 판단에 대해 그의 처지나 특성에 근거하여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만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였다.

5. <보기>를 바탕으로 찬성 측의 ‘입론’을 분석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입론에서 꼭 다루어야 할 쟁점을 ‘필수 쟁점’이라고 한다. 찬성 측에서는 양측이 공유해야 할 ‘필수 쟁점’을 모두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입론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수 쟁점	찬성 측 입론
문제	· 주요 용어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정의한다. ... ㉠ · 문제가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함을 밝힌다. ㉡
해결 방안	·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 ·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임을 밝힌다. ㉣
이익 (영향)	· 해결 방안이 어떤 이익을 주는지 밝힌다. ㉤

- ① ㉠: 입론의 앞부분에서 ‘이력서’의 개념을 정확히 밝혔다.
- ② ㉡: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할 수도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 ③ ㉢: 기업의 노력이 법적인 장치를 갖추는 것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임을 밝혔다.
- ④ ㉣: 본보기가 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을 밝혔다.
- ⑤ ㉤: 채용 문화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로운 점으로 들었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청소년 영화제를 취재하고 온 학교 신문반 학생들에게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학교 신문에 실을 글을 쓰도록 작문 과제를 부여하였다.

[작문 과제 1] 소감문 쓰기
청소년 영화제에 다녀온 소감을 한 편의 글로 써 보자.

[작문 과제 2] 학교 신문 기사 쓰기
현장에서 취재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소년 영화제에 참가한 우리 학교 영상 동아리를 소개하는 학교 신문 기사를 써 보자.

6. 다음은 [작문 과제 1]을 수행한 것이다. ㉠ ~ ㉤ 중 <학생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학생의 글쓰기 계획>

개요 작성		구체화하기
처음	청소년 영화제를 찾게 된 동기	→ 청소년 영화제를 찾아가게 된 이유를 드러내자. ㉠
중간	청소년 영화제 현장의 모습	→ 청소년 영화제의 진행 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제시하자. ㉡
	작품 소개	→ 인상적으로 보았던 몇 작품의 내용이나 특징적인 면을 중심으로 소개하자. ㉢
	출품한 학생들에 대한 느낌	→ 제작에 참가한 학생에 대한 느낌을 ‘작품 소개’와 묶어 하나의 문단으로 쓰자. ㉣
끝	다녀온 뒤 느낀 점	→ 나의 반성과 다짐을 중심으로 마무리하자. ㉤

<학생의 글>

지난 주말에 친구들과 함께 ○○시에서 주최한 청소년 영화제에 다녀왔다. 나는 평소 영화에 관심이 많았지만, 청소년 영화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래서 그 현장을 찾아가서 청소년 영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시내 영화관을 빌려 진행된 영화제에서는 모두 50편이 넘는 응모작이 상영되고 있었다. 영화관은 매우 붐벼서 청소년들의 축제 현장 같았다. 1관에서는 이번 영화제의 지정 주제인 ‘청소년의 꿈’ 부문에 응모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었고, 2관에서는 자유 주제로 응모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있었다. 영화관 밖에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학생들이 영화제 팸플릿을 나눠 주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모두 네 편의 영화를 보았다. 청소년 영화는 대부분 상영 시간이 20분을 넘지 않았다. 그중 감쪽한 동물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작품과 청소년의 연애를 유쾌하게 다룬 작품이 감탄을 자아냈다. 특히 두 번째 작품은 감독의 뛰어난 편집 기술이 돋보여 마치 기성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작품 상영이 끝날 때마다 영화 제작에 참여했던 또래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했는데, 진로를 미리 정하고 열심히 자기 길을 개척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였다.

이번 영화제를 다녀온 뒤,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도 내 꿈인 기자가 되기 위해 학교 신문반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보기>는 [작문 과제 2]를 수행하기 위한 취재 자료의 활용 전략을 살핀 것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취재 자료 —

- 영상 동아리 ‘씨네키드’의 출품작: <꿈길>
- 수상 경력: 작년에는 3등상, 이번 대회 2등상 수상
- 동아리 대표 인터뷰
 - 처음에 촬영 장비와 편집 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
 - 촬영 장비나 편집 시설은 영상 동아리 출신 대학 선배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었음. ㉡
 - 학교 공부를 병행해야 했기에 함께 작업할 시간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았음. ㉢
 - 배우들의 연기가 초보 수준이었으나 때 묻지 않은 연기가 오히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
 - 힘들었지만 서로 양보하며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함. ㉤

학교 신문 기사 쓰기		취재 자료 활용 전략
목적	영상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한다.	취재 자료를 종합하여 전반적인 활동상을 제시한다.
예상 독자의 요구	학우들은 작품 제작 과정의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해 할 것이다.	‘동아리 대표 인터뷰’ 중에서 ([가])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난관과 그것을 자체적으로 극복한 원동력이 드러나게 한다.

- ① ㉠와 ㉢ ② ㉠와 ㉣ ③ ㉡와 ㉣
 ④ ㉡와 ㉤ ⑤ ㉢와 ㉤

- [8~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최근 개인 또는 집단 간 갈등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들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공감’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감의 필요성을 외치기만 할 뿐 구체적인 행동은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공감의 개념, 방법, 효과 등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감 태도를 기르는 데 동참하도록 권유하는 글을 쓰기로 하였다.

[학생의 초고]

누구나 공감 능력은 갖고 있지만 제대로 공감하려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정해 놓은 틀로 상대방을 평가할 뿐 상대방의 눈과 귀로 ㉠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지 모른다. 이러한 갈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감 태도를 길러야 한다.

공감(共感)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자신도 느낀다는 말이다. 그런데 공감을 동정(同情)으로 잘못 아는 사람이 많다. 동정은 남의 어려움을 가엾게 여기는 자기 위주의 반응이지만,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그의 입장에서 함께 ㉡ 느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지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오지 체험을 떠나는 친구를 위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친구에게 오지 체험은 힘든 일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도전하는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위주로 반응하여 친구를 위로는 것은 공감이라 하기 어렵다.

공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틀에서 ㉣ 회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과 공감하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관찰하고 알아가야 한다.

다음은 공감을 제대로 전달할 줄 알아야 한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을 제대로 전해야 상대방이 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게 공감했으면 상대방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 예를 들어 ㉤ 누군가에 섭섭한 마음을 알아차렸다면 “나 네 마음 알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참 섭섭했구나.”라고 말하는 것이 더 공감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한다.

끝으로

[가]

8. [학생의 초고]에 사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직접 경험한 사실을 언급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인다.
 ② 핵심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③ 대조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제의 의미를 더 구체화한다.
 ④ 문제 상황을 서두에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⑤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내용을 친숙하고 쉽게 전달한다.

9. <보기>를 활용하여 <조건>에 따라 [가]에 들어갈 글을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매우 좋은 식사 태도라고 평가했지만, 정작 본인들도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식사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이 몸에 배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조 건 > —

- <보기>의 자료가 전하는 주제 의식을 반영할 것.
- ‘주장-근거-효과’의 순으로 글이 전개되도록 할 것.

- ① 무엇이든 머리로 이해하기는 쉽지만 몸으로 익히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감의 경험은 일상에서 자주 접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공감 연습을 반복할 때 갈등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② 공감은 누가 가르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안에 숨겨진 공감 능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꾸준한 실천도 필요하다.
- ③ 이제부터라도 공감적인 대화가 습관이 되도록 연습해야 한다. 공감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공감적인 대화의 체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④ 공감 태도는 꾸준한 실천을 통해 길러지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공감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공감적인 대화를 생활화해야 한다.
- ⑤ 공감 태도를 지닌 사람을 대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적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바로 공감 태도이기 때문이다. 공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가 더욱 평화로워질 것이다.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보고 들으려’로 고친다.
 - ② ㉡: 문맥상 능동 표현이 적절하므로 ‘느끼는’으로 고친다.
 - ③ ㉢: 문장의 연결 관계가 어색하므로 ‘또한’으로 고친다.
 - ④ ㉣: 문맥상 부적절한 단어이므로 ‘벗어나는’으로 고친다.
 - ⑤ ㉤: 조사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누군가의’로 고친다.

11. <보기1>의 두 조항이 모두 적용된 사례를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기 1> —

제18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ㄱ, ㄷ, ㅈ, ㅊ, ㅌ, ㅎ), ㄴ(ㄲ, ㄴ, ㄷ, ㅈ, ㅊ, ㅌ, ㅎ)’은 ‘ㄴ, ㄷ’ 앞에서 [ㅇ, ㄴ, ㄷ]으로 발음한다.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 <보기 2> —

- ㉠ 어느새 진달래 꽃잎[꼰닙]도 저 버렸구나.
- ㉡ 아기가 색연필[생년필]로 낙서를 마구 해 댔다.
- ㉢ 엄마는 고구마를 식용유[시공뉴]에 튀기고 계셨다.
- ㉣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직행열차[지캥널차]를 타고 떠났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2.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지 않거나 바뀌어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를 ‘규칙 활용’이라 하고, 어간이나 어미의 기본 형태가 바뀌는 것을 일반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불규칙 활용’이라 한다. 불규칙 활용은 ㉠ 어간이 바뀌는 경우, ㉡ 어미가 바뀌는 경우, ㉢ 어간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 ① ‘숫다’가 ‘숫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낫다’는 ‘나아’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 ② ‘얻다’가 ‘얻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엿듣다’는 ‘엿들어’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 ③ ‘먹다’가 ‘먹어’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하다’는 ‘하여’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 ④ ‘치르다’가 ‘치러’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흐르다’는 ‘흘러’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 ⑤ ‘수놓다’가 ‘수놓아’로 활용하는 것과 달리, ‘파랗다’는 ‘파래’로 활용하므로 ㉢에 해당한다.

1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안긴문장’은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문장을 말하며, ‘안은문장’은 안긴문장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을 말한다. 안긴문장은 기능에 따라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서술절, 인용절로 나뉜다.

- ㉠ 영수는 키가 매우 크다.
- ㉡ 영수는 꽃이 핀 사실을 몰랐다.
- ㉢ 영수는 말도 없이 학교로 가 버렸다.
- ㉣ 영수는 공원을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 ㉤ 영수는 영희에게 빨리 오라고 외쳤다.

- ①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서술어 기능을 한다.
- ② ㉡의 안긴문장은 체언의 뜻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③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부사어를 수식한다.
- ④ ㉣의 안긴문장의 주어는 안은문장의 주어와 동일하다.
- ⑤ ㉤의 안긴문장은 안은문장의 주어가 한 말을 인용한 것이다.

14. <보기>의 [가]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 즉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
- 주체 높임법: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조사,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
- 객체 높임법: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객체를 높이는 방법(조사,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은 복잡적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영희야, 선생님께서 찾으셔.’는 상대는 낮추고 주체는 높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 는 상대를 높이고 객체도 높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 ①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어요.
- ②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 ③ 이 손수건 좀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
- ④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죠?
- 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바지를 만드셨어.

15.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예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설명

하나 이상의 발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을 담화(談話)라고 한다. 담화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화 내부의 ㉠언어적 맥락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맥락 또한 파악해야 한다. 비언어적 맥락에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시간, 장소, 목적 등을 포함하는 ㉡상황 맥락과 국가, 제도, 문화 등을 포함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있다.

예문

[가] 쌀쌀한 교실에서

선희: 조금 춥구나!

철호: 나도 조금 추워!

영수: 창문 닫아줄까? ㉠

철호: 고마워. 일어나기가 귀찮아서 참고 있었어. ㉡

선희: 영수야, 난 그냥 조금 쌀쌀해서 한 말이었어. ㉢

[나] 사람들로 붐비는 버스에서

승객 1: 내립니다.

승객 2: 전 이번에 안 내리는데요. ㉣

승객 1: 좀 비켜 달라고요! ㉤

- ① ㉠: ‘영수’는 ‘선희’와 ‘철호’의 발화를 ㉡를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 ② ㉡: ‘철호’는 ‘영수’가 자신의 발화를 ㉠를 중심으로 정확히 이해했음을 알려 주었다.
- ③ ㉢: ‘선희’는 ‘영수’에게 앞선 자신의 발화가 ㉠를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밝혔다.
- ④ ㉣: ‘승객 2’는 ‘승객 1’의 발화를 ㉡를 중심으로 이해하였다.
- ⑤ ㉤: ‘승객 1’은 ‘승객 2’가 ㉠를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말하였다.

[16~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60년대 미국의 학자 맥아더 등은 “군집*에 따라 종의 수가 왜 다른가?”라는 의문을 지니고, 섬을 활용해 이를 연구했다. 섬은 육지보다 좁고 주변 군집들과 격리되어 있어 종의 수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종의 이입률과 멸종률, 섬의 면적,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이 섬의 종 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를 ‘섬생물지리 평형설’이라고 부른다.

이 학설에 따르면, 이입률과 멸종률을 통해 섬의 종 수가 결정되는 과정을 알 수 있다. 이입률은 새로운 종이 일정 기간 섬으로 이입되는 비율이고, 멸종률은 섬에 있던 기존 종이 일정 기간 사라지는 비율이다. 육지는 섬으로 이주해 가는 종의 공급원으로, 육지의 종 수가 섬으로 이입되는 종 수에 영향을 준다. 식물의 종자와 작은 절지동물 등은 바람을 타고 섬에 도달하고, 조류 같은 일부 동물은 자력으로 섬에 도달한다. 섬에 기존 종이 적을 때는 새로운 종의 이입률이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종들이 섬에 서식하게 되므로, 육지에서 섬으로 이입될 수 있는 새로운 종 수가 적어지고 이입률은 감소한다. 일단 한 종이 섬에 이입되면, 개체수가 늘어나고 한동안 존속한다. 그러나 섬의 종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쟁과 포식자-피식자 상호작용으로 일부 종들이 사라지면서 멸종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입과 멸종이 진행되는 유동적인 상태를 거쳐, 종의 이입률과 멸종률이 같아지면 평형 상태에 놓여, 섬의 종 수가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A] 또한 이들은 섬의 면적, 육지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섬의 종 수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큰 섬은 육지에서 이동하는 생물에게 더 큰 먹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작은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식지와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에 멸종률은 더 낮다.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큰 섬은 작은 섬보다 종 수가 더 많다. 한편, 생물들이 육지에서 가까운 섬을 찾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육지 근처의 섬은 먼 섬보다 이입률이 더 높다. 그러나 멸종률은 거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평형 상태일 때, 육지에서 가까운 섬은 먼 섬보다 종 수가 더 많다.

이 학설은 어떤 종이 섬으로 이입할지 또는 섬에 있던 어떤 종이 멸종할지를 명시하지는 않는다. 섬의 종 조성은 일정하지 않지만, 종 수는 평형 상태에 ㉠ 이를 것이라 예측할 뿐이다. 또한 이들의 연구는 각 섬의 먹이 자원, 인간의 간섭, 각기 다른 생물종이 지닌 특성 등과 같은 요인을 배제하였다는 점, 육지와 같은 고립되지 않은 서식지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고립된 서식지에 대한 연구, 환경 요인에 따른 진화와 생태 현상 연구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 군집: 특정한 환경에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함께 사는 생물의 모임.

16. 윗글의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학설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한다.
- ② 학설의 발생 배경을 여러 관점에서 분석한다.
- ③ 학설을 소개하고 그것의 한계와 의의를 제시한다.
- ④ 여러 학설의 특징을 비교하여 공통점을 부각한다.
- ⑤ 대립적인 학설을 통합하는 새로운 학설을 소개한다.

17.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섬은 육지보다 종의 수를 연구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다.
- ② 육지의 종 수는 섬으로 이입되는 종의 수에 영향을 준다.
- ③ 섬의 종 수는 경쟁과 포식자-피식자의 상호작용에 따라 달라진다.
- ④ 섬에 이입할 종이나 섬에서 멸종할 종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다.
- ⑤ 평형 상태는 새로운 종의 이입과 기존 종의 멸종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18.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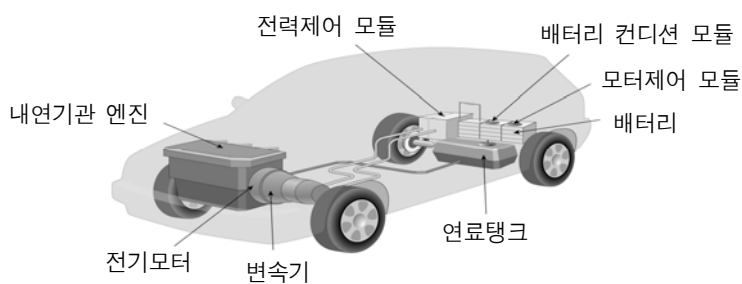
- ① ‘가’는 네 섬 중에서 이입률과 멸종률이 가장 높아 종의 수가 가장 많겠군.
- ② ‘나’는 ‘라’보다 면적으로 보면 이입률이 높은 편이고, 거리로 보면 멸종률이 높은 편이겠군.
- ③ ‘다’는 면적으로 보면 이입률과 멸종률 모두 ‘가’보다 낮은 편이겠군.
- ④ ‘라’는 네 섬 중에서 이입률이 가장 낮고, 멸종률은 ‘나’보다 높은 편이겠군.
- ⑤ ‘가’와 ‘라’의 종 수 차이는 ‘다’와 ‘라’의 종 수 차이보다 적겠군.

19.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논란 끝에 결론에 이르렀다.
- ② 이른 아침에 학교로 출발했다.
- ③ 동생의 잘못을 어머니께 일렀다.
- ④ 정거장에 이르러서야 늦었음을 알았다.
- ⑤ 속담에 이르길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다.

[20~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동차의 매연으로 인한 대기 오염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각 국에서는 앞 다투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를 생산 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중 상용화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hybrid) 자동차를 들 수 있다. ‘하이브리드’란 두 가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쳤다는 의미로, 내연기관 엔진만 장착한 기존의 자동차와 달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 엔진에 전기모터를 함께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동 방식이나 구조상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위의 그림과 같은 핵심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내연기관 엔진은 기관 내부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열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꾼다. 전기모터는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전동기나 발전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동기 역할을 할 때는 전력을 사용하여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고, 발전기 역할을 할 때는 회전 에너지를 전력으로 바꾸어 배터리를 충전한다. 배터리는 전기모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상태에 따라 에너지가 충전되기도 한다. 그 외 구성 요소에는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의 회전 운동을 바퀴에 전달하는 변속기, 연료를 보관하는 연료탱크, 전력이나 전기모터를 제어하는 모듈*,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모듈 등이 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차량 속도나 주행 상태 등에 따라 내연기관 엔진과 전기모터의 힘을 적절히 조절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시동을 걸 때는 전기모터만 사용하지만, 가속하거나 등판*할 때처럼 많은 힘이 필요하면 전기모터가 엔진을 보조하여 구동력을 높인다. 정속 주행은 속도에 따라 두 유형이 있는데, 저속 정속 주행할 때는 전기모터만 작동하지만, 고속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과 전기모터가 함께 작동한다. 반면에 감속할 때는 연료 공급이 중단되어 엔진이 정지되고 전기모터는 배터리를 충전한다. 또한 잠깐 정차할 때는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하여 차량의 공회전*에 따른 불필요한 연료 소비와 배기가스 발생을 차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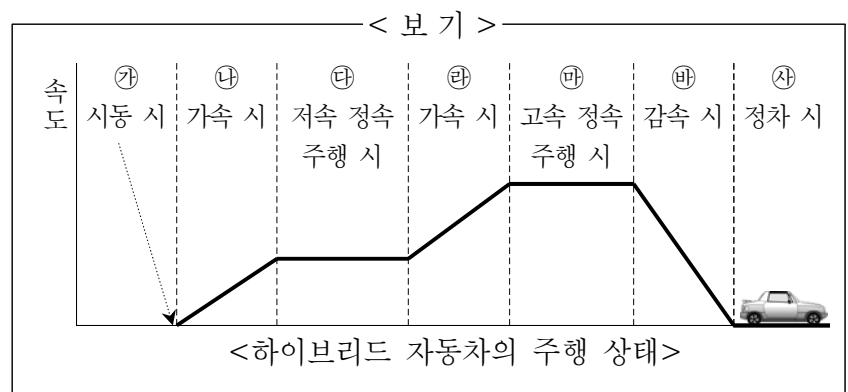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전기모터 시스템이 추가로 내장되면서 차체가 무거워지고, 가격도 비싸진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구조가 복잡해서 차량 정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 근본적으로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동력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연료 소비율이 낮아 배기가스도 적게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점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무공해를 지향하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자동차가 일반화될 때까지 중요한 운송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모듈: 프로그램이나 기계 또는 시스템의 구성 단위.
* 등판: 차량 따위가 비탈길을 올라가는 일.
* 공회전: 기계 따위가 헛도는 일.

20. 밑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전력이나 전기모터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다.
- ② 만드는 방법에 따라 구동 방식이나 구조상 차이가 있다.
- ③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연료전지자동차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의 운송 수단이다.
- ④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구조가 복잡하여 차량 정비에 어려움이 있다.
- ⑤ 차량의 속도나 주행 상태에 따라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에서는 전기모터만 작동한다.
- ② ㉡와 ㉣에서는 엔진과 전기모터가 함께 작동한다.
- ③ ㉢와 달리 ㉤에서는 엔진도 작동한다.
- ④ ㉤에서는 전기모터가 전동기의 역할을 한다.
- ⑤ ㉦에서는 엔진이 자동으로 정지한다.

22.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력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 ② 내연기관 엔진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 ③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 ④ 오염된 공기를 정화시켜 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 ⑤ 전기모터의 사용이 배기가스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23~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의사 결정을 ㉠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듯이 국제 가격도 국제 거래에서 수요자와 공급자들의 의사 결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여러 국제 가격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을 들 수 있다.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와 다른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1달러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단위를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 경향이 있다. 가령, 1달러가 우리나라 원화 1,000원과 교환된다면 ‘원/달러 명목환율’은 ‘1,000원/달러’로 표시한다. 만일 1달러와 교환되는 원화가 1,100원이 되어 원/달러 명목환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다. 같은 원리로 원/달러 명목환율이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러한 명목환율은 한 나라의 통화가 가지는 대외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실질환율은 두 나라 사이의 재화나 서비스 교환 비율로, 외국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국내 상품 단위수로 표시한다. ‘원/달러 실질환율’은 ‘원/달러 명목환율 $\left[\frac{\text{원}}{\text{달러}}\right]$ ’과 ‘각 나라의 통화 단위로 표시된 두 나라 물건 값 $\left[\frac{\text{미국 가격}}{\text{우리나라 가격}}\right]$ ’의 곱으로 구한다. 원/달러 명목환율이 1,000원/달러이고 우리나라 쌀 1kg의 값이 2,000원, 미국 쌀 1kg의 값이 1달러라고 하자. 두 나라 쌀 사이의 원/달러 실질환율은 $\left(\frac{1,000\text{원}}{1\text{달러}} \times \frac{1\text{달러}}{2,000\text{원}} = \frac{1}{2}\right)$ 이 된다. 이는 미국 쌀 1kg과 우리나라 쌀 0.5kg이 같은 값으로 교환된다는 의미이므로,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의 2배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우리나라 쌀값이 미국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면 $\left[\frac{\text{미국 가격}}{\text{우리나라 가격}}\right]$ 이 작아지게 되므로, 원/달러 실질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미국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보다 상승폭이 크면 원/달러 실질환율이 상승하게 되어 우리나라 쌀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도 상승한다. 실질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이 ㉢ 반영된 것이므로 한 나라 상품의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측정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한 나라의 실질환율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과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실질환율의 변화는 국내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의 실질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값이 외국 제품에 비해 더 싸지므로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하여 국내 경기가 활성화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우리나라 제품의 값이 외국 제품에 비해 더 비싸지므로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하여 국내 경기가 ㉣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실질환율 하락으로 큰 ㉤ 타격을 입을 수 있다.

* 기축통화: 국제 거래에서 주된 교환 수단으로 쓰이는 특정 나라의 통화(화폐).

23.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
 - ② 대상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잘 알려진 대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④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 ⑤ 대상의 변화 과정을 제시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있다.

2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명목환율은 두 나라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다.
 - ② 명목환율을 대체하기 위해 만든 국제 가격이 실질환율이다.
 - ③ 실질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증가하게 된다.
 - ④ 명목환율과 실질환율은 국제 거래에서 의사 결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 ⑤ 실질환율은 외국 통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반영한 교환 비율이다.

2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구분	우리나라(원화)		미국(달러화)	
	1월	7월	1월	7월
명목환율 (원/달러)	1,000원/달러	1,100원/달러	—	
A상품 가격 (kg당)	3,000원	8,800원	3달러	4달러

- ① 원/달러 명목환율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삼고 있군.
- ②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원화의 가치는 하락하였군.
- ③ 1월에는 두 나라의 A상품에 대한 상대적인 구매력이 같다고 볼 수 있군.
- ④ 7월 원/달러 실질환율을 볼 때 우리나라 A상품은 미국보다 2배 비싸군.
- ⑤ 1월과 비교할 때 7월에 우리나라 A상품의 원/달러 실질환율은 상승하였군.

26.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균형이 맞게 바로잡거나 적당하게 맞추어 나감.
 - ② ㉡: 어떤 일이나 현상을 앞장서서 이끌거나 안내함.
 - ③ ㉢: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 어떤 현상이 나타남.
 - ④ ㉣: 어떤 현상이나 사물이 진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무름.
 - ⑤ ㉤: 어떤 영향을 받아 기운이 크게 꺾이거나 손해를 봄.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생물학자인 윌슨은 21세기 과학 기술의 시대에 인류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은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어느 한 가지 학문만으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그는 다양한 학문 간 ‘통섭(統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그가 말한 통섭이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과 철학, 심리학 등 인간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인문학을 통합하여 하나의 지식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윌슨의 통섭을 지탱해 주는 것은 바로 ㉠ 환원주의이다. 이는 복잡한 대상을 구성하는 근본적 요소를 밝히려는 노력으로, 윌슨은 모든 존재의 근본적 요소는 관찰과 실험을 통한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인간 역시 자연과학으로 환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자연과학으로 완벽히 포섭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물체의 운동을 물체와 땅 사이의 마찰력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고유한 특성인 사랑이나 사회조직의 작동을 호르몬이나 유전자와 같은 자연과학적 법칙에 의한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윌슨의 주장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동시에 ㉡ 인문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대상과 자연과학의 대상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통섭이 불가능함을 설명한다. 인간은 자연물과 달리 자연과학적 법칙의 지배를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체의 낙하는 중력이라는 자연과학적 법칙으로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번지 점프와 같은 인간의 낙하는 중력보다는 신체 단련이나 즐거움 등 개인의 특별한 목적이 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이 탐구하는 대상의 본질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파악되는 객관적 실체가 아님을 지적한다. 인간의 마음이나 정신은 물리적 현상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기가 어렵고,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의 대상 인식 방법인 관찰과 실험은 인문학에서는 대상의 본질을 연구하는 충분한 방법이 되지 못한다. 인문학자들은 관찰 주체가 지닌 관점에 따라 대상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관찰자의 관점이 배제된 객관적 대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처럼 자연과학과 명백한 경계선을 갖는 인문학적 관점이 윌슨의 생각처럼 자연과학으로 완전히 포섭되기란 어렵다는 것이 인문학자들의 주장이다.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문학적 지식과 자연과학적 지식이 소통하여야 한다는 윌슨의 지적에는 동의하지만 그 소통의 방법이 통일된 지식 체계를 세우는 것이라면 이는 불가능한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문 간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의 고유한 정체성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윌슨은 현상의 원인을 일관된 관점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 ② 윌슨은 학문 간 통섭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 ③ 인문학자들은 인문학의 정체성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인문학자들은 물체의 낙하와 인간의 낙하를 동일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 ⑤ 인문학자들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섭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한다.

2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공통점을 밝혀 내려는 이론이다.
- ②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은 쉽게 변화한다는 인식이다.
- ③ 대상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 ④ 모든 대상을 자연과학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이다.
- ⑤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찾기 위한 방법이다.

29. 윌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 ① 인간의 정서적 작용은 뇌의 화학적 작용의 결과임이 밝혀지고 있다.
- ② IT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속 가상공간과 현실 세계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있다.
- ③ 동물이 개체 번식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유전자가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 ④ 자동 번역 시스템이 고안되어 서로 다른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있다.
- ⑤ 인지심리학의 발전으로 인간의 행동에 관여하는 다양한 심리학적 동기가 밝혀지고 있다.

30. ㉡의 관점에서 <보기>를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보 기 > —




그림 속 화가는 눈앞에 앉은 모델과는 무관한 낙서를 하고 있는 듯 보인다. 화가가 스케치하고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 비밀은 모델의 동작에 있다. 모델은 뜨개질을 하면서 뜨개바늘을 앞뒤로 움직이고 실타래를 매만지기도 하는 등 다양한 동작을 보이는데, 화가는 바로 모델의 동선을 그리고 있는 것이다.

- ① 화가의 스케치는 모델을 물리적 현상처럼 관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② 화가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델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
- ③ 화가는 뜨개질을 하고 있는 모델의 객관적 실체를 대상의 본질로 인식한다.
- ④ 화가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는 주관의 배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⑤ 화가의 스케치는 대상의 본질과 무관한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31~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A]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히 피는 성에꽃

[B]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판원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나 피워 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C]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이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D]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E]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 최두석, 「성에꽃」 -

(나)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획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숨 같은 마음을 **다 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 번 덴**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영탄적 어조를 통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대상을 참신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반복하여 대상에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어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⑤ 명령형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32.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계절적 배경과 관련지어 차창에 핀 성에꽃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 만나 이루어진 성에꽃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있다.
 - ③ [C]: 서민들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성에꽃의 아름다움에 심취하고 있다.
 - ④ [D]: 현실의 벽에 부딪혀 성에꽃을 지우는 태도를 통해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E]: 오랫동안 함께 했던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눈과 나뭇가지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 눈은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릴지라도 나뭇가지에 눈꽃을 피우기 위해 인내하고 헌신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첫사랑인 눈꽃을 피워 내고, 봄이 되면 나뭇가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낸다. 이를 통해 인내와 헌신으로 피워 낸 사랑의 고귀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①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은 눈이 눈꽃을 피우기 위해 겪는 시련으로 볼 수 있다.
- ② ‘다 피부어 준 다음에야’는 나뭇가지에 대한 눈의 헌신적 태도로 볼 수 있다.
- ③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은 나뭇가지의 노력을 통해 피어난 봄꽃의 기쁨으로 볼 수 있다.
- ④ ‘한 번 덴 자리’는 눈이 녹은 자리이자 봄꽃이 피는 자리라는 점에서 고귀한 사랑의 바탕으로 볼 수 있다.
- ⑤ ‘아름다운 상처’는 끝없는 인내와 헌신 끝에 얻은 사랑의 결실인 봄꽃으로 볼 수 있다.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버지는 등에 찰싹 달라붙은 내 티셔츠를 들추고 통풍을 시켜주며, 짜아식 집에 가서 목욕하고 자야겠다고 했다. 그러고는 내 손목을 잡고 풀장이 있는 데로 갔다. ㉠ 아버지와 같이라면 풀도 조금쯤은 덜 무서웠다. 아버지는 건장한 몸집과 솔뚜껑 같은 손을 갖고 있었다.

아버지가 풀 가로 걷고 나는 안측으로 걸으면서도 겁이 나서 아버지에게 꼭 매달렸다.

별안간 내 몸이 공중으로 붕 떴다. 나는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에게 영겨붙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가볍게 털어냈다. 나는 물속으로 조약돌처럼 풍덩 빠지며 킬킬킬 하는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얼마 동안 물속에서 죽을 기를 쓰고 허우적댔는지 모른다. 가까스로 풀장 거의 손잡이를 붙잡고 보니, 어처구니없게도 목 위가 물 밖에 나왔는데도 발이 땅에 닿는 게 아닌가.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허리를 비틀고 킬킬대고 있었다. 마치 웃음이 사례가 들린 것처럼 격렬하고 괴롭게 아버지는 킬킬댔다.

㉡ 순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물에 빠뜨려 죽이려 했구나 하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나보다 죽은 누이동생을 더 사랑했고, 그래서 내가 살아남은 게 미워서 나도 누이동생처럼 물에 빠져 죽기를 바랄 수도 있다고 나는 내 추측에다 제법 논리적인 체계를 세웠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이었다. 아버지뿐 아니라 풀도 나를 배신했다. 늘 헤아릴 길 없이 충충한 깊이로 나를 겁주던 풀이 내 한 길도 안 되는 깊이일 줄이야.

㉢ 배신당한 충격과 분노가 도리어 나에게 수영을 배울 용기가 되었다. 그해 여름 처음 나는 자진해서 동네 교회당에서 가는 하계 캠프에 참가해서 수영을 익혔다. 처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며 물에 대한 공포감에 도전하다가 어느 틈에 물개처럼 자연스럽게 물과 친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도 저절로 풀렸다.

[중략 줄거리] 국민학교 이학년인 ‘나’는 황금빛 단추가 달린 검은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늠름함과 훌륭한 느낌을 느낀다. 그해 여름 아버지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를 데리고 출근하겠다고 선언한다.

아버지와 나는 버스를 탔다. 버스가 달릴수록 우리 동네보다 길도 넓어지고 집도 커지고 차와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 동네가 서울 시내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낮을 잃고 창밖을 내다보는 나한테 “정신이 없지? 여기가 시내란다” 하고 말을 걸었다. 내가 대답을 안 하자 “짜아식 촌놈이라 별수 없구나. 질려서 얼이 쏙 빠져버렸잖아” 하기도 했다.

[A] 무지무지하게 높은 집만 있는 동네에서 버스를 내렸다. 사람이 너무 많아 여기서 아버지를 잃으면 생전 못 찾을 것 같아서 나는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붙들었다. 문득 아버지를 따라나온 게 후회스러워졌다. 몇 년 전 나를 뿌리쳐 풀 속에 뺨개쳤듯이 이 엄청난 인파 속에 아버지가 나를 뺨개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물속에선 헤엄이라는 거라도 칠 수 있지만 인파에 빠진 촌놈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뿌리지 않았을뿐더러 더욱 꼭 붙들어주었다.

칠층인가 팔층인가 되는 회색 빛깔의 집 앞에서 아버지는 멎었다.

“여기가 아빠 직장이란다.”

큰 집이었지만 그 근처엔 십층도 넘는 집이 수두룩해서 나는 가볍게 실망했다.

아버지와 내가 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다. ㉣ 나는 아버지를 위해 문을 열어준 시중꾼을 찾아내려고 두리번거렸으나 아무도 찾지를 못했다.

저절로 열리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제일 먼저 있는 방으로 아버지가 들어섰다. 그 방은 드나드는 사람을 뵈히 살펴볼 수 있는 유리창이 달려 있고 딱딱한 비닐의자가 서너 개, 회색빛 호마이카 테이블과 전화가 있을 뿐인 좁고 살벌한 방이었다.

게 좀 앉았거라, 하면서 아버지는 모자를 벗고 이마의 땀을 닦았다. 나는 처음으로 이 여름에 아버지는 저 검은 양복으로 얼마나 더울까 하는 생각을 했다.

[B] 자동차 밖에 새까만 차가 멎더니 대머리가 까진 키가 작고 넥타이를 맨 쪼오다 티가 더러더러 나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버지는 질겁을 해서 뛰어나갔다. 그러더니 곳곳이 서서 우리 삼형제가 매일 아침 아버지한테 하는 것 같은 ‘경렷’을 그 쪼오다한테 엄숙하게 올려붙이는 것이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그 쪼오다가 아버지를 거들떠봤는지 안 봤는지 그것을 살필 겨를도 없었다. 승용차는 연달아 자동차 밖에 와서 멎고, 아버지와는 너무도 단판인, 역수같이 퍼붓는 소나기 속을 물 한 방울 안 맞고 십 리도 가게 생긴 새앙쥐 같은 사내들이 그 속에서 내렸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경의를 과장한 ‘경렷’을 올려붙였다.

넥타이 맨 새앙쥐 같은 사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존재를 무시하고 점잖게 걸어 들어갔지만 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강렬하게 의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알 수가 있었다.

아버지의 당당한 거구와 비상식적인 화려한 옷은 실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넥타이 맨 새앙쥐들의 우월감과 권위의식을 충족시키기 위한 어릿광대의 의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제야 아버지의 방 유리창에 ‘수위실’이라고 써 있는 걸 읽을 수가 있었다. 그나저나 아버지는 왜 나에게 자기의 어릿광대질을 보여주려고 했을까. 높은 분의 아침마중을 끝낸 아버지가 수위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별안간 킬킬댔다. 웃음이 사례가 들려 더 지독한 웃음이 되어, 아버지의 웃음은 좀체 멎지를 못했다. ㉤ 그것은 질자배기 깨지는 소리였으며, 동시에 나의 우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나는 수위실을 뛰어나왔다. 내 앞을 가로막는 문이 다시 스스로 열렸다. 나는 어느 틈에 건물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아버지는 나를 붙들지 않았다. 아니 또 한번 뺨개쳤던 것이다. 나는 도시의 인파 속에서 몇 년 전 풀 속에서 허위적대듯 허위적댔다. 그리고 풀 속에서 듣던 것과 똑같은 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들었고, 풀 속에서처럼 고독했고 풀 속에서처럼 이를 갈며 아버지에게 앙심을 먹었다.

내가 고등학생이 되자 아버지도 많이 늙었다. 나는 그 나이가 되도록 그런 어릿광대스러운 양복을 입고 수위 노릇을 해야 하는 아버지에게 연민을 느낄지언정 앙심이 남아 있을 리 없었다.

— 박완서, 「배반의 여름」—

34.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등장인물과 상황에 대한 반응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② 시대적 상황 묘사를 통하여 현실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일한 사건을 여러 인물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켜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35.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기대 – 배반 – 성장’의 이야기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주인공은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성숙하지 못한 소년으로, 아버지에 대해 기대와 믿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배반을 경험한다. 하지만 차츰 아버지에 대한 오해와 앙심이 풀리면서 내적 성장을 이루게 된다.

- ① ㉠에서 물을 무서워하는 ‘나’는 ‘아버지’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군.
- ② ㉡은 ‘나’가 ‘아버지’의 행동으로 기대와 믿음이 깨어지자 보인 반응이군.
- ③ ㉢에서 ‘아버지’에게 느낀 배반감이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는군.
- ④ ㉣은 ‘아버지’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해 줄 실체를 찾으려는 기대에서 나온 행동이군.
- ⑤ ㉤은 ‘아버지’의 웃음소리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써 ‘나’의 내적 성장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군.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 [B] 모두 현재형 진술을 통해 긴박감을 조성한다.
- ② [A], [B]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한다.
- ③ [A]에는 인물의 내적 갈등이,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이 드러난다.
- ④ [A]는 새로운 공간이, [B]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인물의 심리 변화를 유발한다.
- ⑤ [A]에서는 직접적 제시를 통해, [B]에서는 간접적 제시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물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꺾쳐신들 생각이야 업슬소나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문
열두 때 김도 길샤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굶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술(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돌이켜 풀쳐 해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기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댕소리 섯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증생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거든
우리 님 가신 후는 무슨 약수(弱水)* 가렸기에
[A] 오거나 가거나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가
난간(欄干)에 비겨 서서 님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설다
세상의 서른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顔)이야 나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마도 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 백마금편: 훌륭한 말과 값비싼 채찍.
* 약수: 전설에 등장하는 강. 부력이 약해서 기러기의 깃털도 가라앉는다고 함.

3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임의 화려한 모습을 언급하며 거처를 알 수 없는 임에 대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자연의 변화를 활용하여 임과 헤어져 있는 시간이 길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통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여 임을 기다리다 시름과 한이 쌓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설화적 인물과 자신의 처지를 동일시하여 임과의 재회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8. [야유원(冶遊園)]과 [부용장(芙蓉帳)]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야유원’은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벗어나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② ‘야유원’은 임이 화자를 기다리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임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 ③ ‘야유원’은 임이 있을 것으로 추측하는 공간, ‘부용장’은 임의 부재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야유원’은 화자가 타인들과 어울리는 공간, ‘부용장’은 화자가 타인들로부터 벗어난 공간이다.
- ⑤ ‘야유원’은 임과 이별과 만남을 반복한 시련의 공간, ‘부용장’은 임과 이별한 후에 정착한 도피의 공간이다.

39. [A]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꿈에나 님을 보려 턱 받치고 기렸으니
 양금(鴛鴦)*도 차도 찰샤 이 밤은 언제 썰고
 하루도 열두 때 한 달도 서른 날
 잠시라도 생각 말아 이 시름 잊자 하니
 마음에 맺혀 있어 뻗속까지 사무치니
 편작(扁鵲)*이 열이 온들 이 병을 어찌 하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탓이로다
 차라리 죽어서 범나비 되리라
 꽃나무 가지마다 간 데 족족 앉았다가
 향 문은 날개로 님의 옷에 읊으리라
 님이야 나인 줄 모르셔도 내 님 좇으려 하노라

—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중 —

* 양금: 원앙을 수놓은 이불.

* 편작: 중국 춘추 시대의 명의(名醫).

- ① [A]와 <보기> 모두 화자는 꿈을 통해서라도 임과 만나기를 바라고 있다.
- ② [A]와 <보기> 모두 화자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임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청각적 심상을 통해 임과 이별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보기>의 화자는 [A]의 화자보다 임과 함께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고 있다.
- ⑤ <보기>의 화자와 달리 [A]의 화자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서역 파사국의 왕은 정덕왕후, 송경후, 보만후라는 세 부인을 두었는데, 슬하에 자식이 없어 늘 근심이었다. 왕이 자리를 비운 사이 보만후가 태자를 낳게 되자, 양후(정덕왕후와 송경후)는 이를 시기하여 시비 채란과 짜고 태자를 고깃덩어리와 바꿔치기한다.

채란 아뢰기를,

“낭랑은 이것을 보시옵소서. 아이가 아니라 꿩덩이를 낳으셨으니 이런 변괴(變怪)가 어디 있으리이까?”

보만후 혼미 중 놀라 급히 몸을 들어 보니, 과연 아이는 간데없고 붉은 고깃덩이이거늘, 혼비백산하여 정신이 없는 중 가만히 생각하되,

‘내 아까 정녕 한 남아를 보았더니, 이 어찌된 일인가? 지금 보건대 고깃덩이가 있는즉 아까 잘못 보았던가? 잠깐 의지하여 줄 적에 남아로 보았던가?’

곡절을 알 수가 없어 의혹이 만단(萬端)*하더니 양후가 와서 위문하거늘, 미처 대답하지 못하고 문득 기절하거늘 양후 말하기를,

“해산은 임의로 하지 못하나니 과도히 근심하지 마시고 몸이나保重(保重)하소서.”

이에 국과 밥을 무수히 권하니, 이때를 당하여 보만후 어찌 모해(謀害)에 빠진 줄 알리오. 다만 눈물을 머금어 노심초사(勞心焦思)할 뿐이더라.

그날 밤에 양후가 아이를 무릎에 놓고 보니 골격이 장대하여 용봉지자(龍鳳之姿)요 천일지표(天日之表)라.* 은은히 국왕의 모습이 많아 엄연한 군왕(君王)의 상이므로 양후 탄식하거늘,

“이런 아이를 만일 해하면 천殃(天殃)이 어찌 없으리오. 만일 처치하다가 곧 발각되는 날이면 우리 두 목숨이 죽을 뿐 아니라 왕상의 씨가 없어질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리오?” 무수히 생각하다가,

“이미 내친걸음이라. 주판지세(走板之勢)*로 죽은들 어찌 그저 있으리오.” / 악한 마음이 일어 채란더러 묻기를,

“이 아이를 어찌 처치하면 좋을꼬? 계교를 생각하여 속히 처치하라. 날짜가 더디면 발설될까 두려우니라.”

채란이 대답하기를,

“이 궁 밖에 큰 산이 있으되, 사나운 짐승이 많아 사람이 감히 그 근처에 가지 못하오니, 아이를 갖다가 산중에 버리면 짐승의 밥이 되리이다.”

양후 이르기를, “그러면 속히 행하라.”

채란 아뢰기를, “오늘 밤중에 갖다 버리오리이다.”

이날 밤 사경(四更)에 채란이 아이를 싸 가지고 산중으로 들어갈새, 가슴이 두근거리고 몸이 사시나무 떨 듯하여 무서운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고 일 리쯤 가서 아이를 산언덕에 버리고 급히 돌아올새, 홀연 공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며 바람 소리 진동하는지라. 채란이 한걸음에 급히 궁중으로 내려와 양후를 보고 아뢰기를,

[A] “아이는 아마 수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오리다. 막 버리고 돌아오려는데 머리 위에서 이상한 새 소리와 바람이 지나더니만 독수리가 채 갖다 보이다. 사람이 죄는 못 지을 일

이오. 어찌나 무서운지 죽을 뻔하였습니다.”

양후 상을 후하게 내리며 이르기를,

“다음날 가서 보고 오라.”

이튿날, 채란이 산중으로 들어가 보니 백학(白鶴)이 한 날개

로는 땅에 깔고 한 날개로는 아이를 덮고 있다가 사람을 보고 달아나거늘, 나아가 자세히 보니 아이가 밤새 더욱 장성함과 같거늘, 채란이 놀라며 생각하되,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로다. 어찌 백학이 와서 호위할 줄 알았으리오.’

급히 돌아와 양후에게 그 일을 고하니, 양후 대경실색(大驚失色)하여,

“그 아이를 그곳에 두어서는 아니 될 일이니 데리고 오라.”

이에 채란 아뢰기를,

“그냥 두면 짐승의 밥이 아니 되더라도 굶주려 죽을지니, 갖다가 무엇을 하려 하나이까?”

양후 이르기를,

“짐승이 호위할 적에는 범상한 아이 아니로다. 필연 사람이 있어 구하리니 어찌 후환이 없으랴. 데려다가 달리 처치하여 뒤의 근심을 덜리라.”

채란이 명을 받들어 즉시 가서 데려왔거늘, 양후가 컷속말로 가로되,

① “이제 남을 해하려다가 우리가 도리어 근심을 맡았도다. 이 일을 장차 어찌하면 좋을꼬?”

채란에게 묻기를,

“일이 이에 이르렀으니 다른 방침을 다시 생각하라.”

채란이 묵묵무언(默默無言)이다가 무릎을 치며 아뢰기를,

“묘하고 묘하다. 기특한 꾀 있어 귀신도 모르게 처치하리니 염려치 마옵소서.”

양후 급히 묻기를,

“무슨 꾀가 그같이 묘하냐? 급히 일러 속 시원하게 하라.”

채란 아뢰기를,

“폐하께서 일찍이 후원(後苑)에 밭을 갈아 늘 천하 용형을 보시나니, 그 밭을 가는 소가 병이 나서 다른 소로 바꾸실새, 암소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암소가 사나워 사람을 보면 [B]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므로 사람이 가까이 하지 못하니, 죽을 주려 하여 놓고 쏘으면 사람을 쫓아 잡으려 하니, 소 구유에 이 아이를 넣고 여물을 많이 주면 빠도 남기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니, 아무 염려도 마옵소서.”

양후 크게 기뻐하여,

“이 계교 가장 신기하고 묘하다. 채란 아니면 우리 두 사람이 어찌 배개를 편히 하리오.”

무슨 경사나 난 듯하여 잠들기를 기다려 행사하려 하더니, 이윽고 날이 점점 저물어 인적이 조용하거늘, 채란이 양후와 같이 가서 아이를 소 구유*에 담아 놓고 위에다가 여물을 많이 덮고 멀리서 바라보니, 대저 천지간에 이런 몸쓸 무리가 어디 있으리오. 천지 무심하지 아니하시니, 귀인은 백신(百神)이 호위한단 말이 옳도다.

이때 암소가 여물을 헤치고 아이를 곱게 통째로 삼키고, 이후로는 여물도 아니 먹고 옆에 가만히 있으니, 이 소는 하늘소로 태자를 위하여 내려와서 태자 구하고 하늘에 오를 소더라.

이 때 양후와 채란이 바라보고 돌아와서 기꺼워함이 측량할 길 없더라.

— 작자 미상, 「금우태자전」 —

* 만단: 여러 가지.
* 용봉지자 천일지표: 모습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
* 주판지세: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는 형세.
* 구유: 소나 말 따위의 가축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

40.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행동과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회화화하고 있다.
- ② 액자 구조를 통해 사건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③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과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 ④ 대화가 진행되면서 인물 간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 ⑤ 꿈 속 장면을 삽입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41. [A]와 [B]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여 상대를 치켜세우고 있다.
- ② [B]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상대를 속이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B]에서는 타인의 행동을 원망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 드러내고, [B]에서는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예측하며 상대를 안심시키고 있다.

4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금우태자전」에는 주인공 태자가 유년기에 온갖 시련을 겪는 과정이 나타난다.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나)	(다)	(라)	(마)
출생과 동시에 납치됨	산에 버려짐	백학의 호위를 받음	궁으로 다시 오게 됨	소에게 먹힘

- ① (가): 보만후는 태자를 직접 보았지만 양후와 채란의 거짓말에 속아 진실을 모른 채 애만 태운다.
- ② (나): 양후가 태자의 모습을 보고 죽이기를 망설이자 채란이 나서서 태자를 양후 몰래 버린다.
- ③ (다): 태자의 비범함을 깨닫게 된 채란은 산에서 일어난 일을 양후에게 알린다.
- ④ (라): 양후는 태자를 산에 두어서는 그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
- ⑤ (마): 자신들의 계교가 의도대로 성공했다고 믿은 양후와 채란은 함께 기뻐한다.

43. ㉠에 나타난 ‘양후’의 상황과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은?

- ① 방약무인(傍若無人) ② 자승자박(自繩自縛)
- ③ 자포자기(自暴自棄) ④ 표리부동(表裏不同)
- ⑤ 호가호위(狐假虎威)

[44~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자는 연하고 탄력이 있어 두세 판국을 두고 나면 반면(盤面)*이 얹어서 곱보같이 된다. 얼마 동안은 그냥 내버려 두면 반면은 다시 본디대로 평평해진다. 이것이 비자반*의 특징이다.

비자를 반재(盤材)로 진중(珍重)하는 소이(所以)는*, 오로지 유연성(柔軟性)을 취함이다. 반면에 돌이 닿을 때의 연한 감촉 —, 비자반이면 어느 바둑판보다 어깨가 마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흑단(黑檀)이나 자단(紫檀)이 귀목(貴木)이라고 해도 이런 것으로 바둑판을 만들지는 않는다.

비자반 일등품 위에 또 한층 뛰어 특급품이란 것이 있다. 반재며, 치수며, 연륜이며 어느 점이 일급과 다르다는 것은 아니나, 반면에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흉터가 보이면 이게 특급품이다. 알기 쉽게 값으로 따지자면, 전전(戰前) 시세로 일급이 2천 원 전후인데, 특급은 2천 4, 5백 원 —, 상처가 있어서 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되레 비싸진다는 데 진진(津津)한* 묘미가 있다.

반면이 갈라진다는 것은 기약치 않은 불측(不測)의 사고이다. 사고란 어느 때 어느 경우에도 별로 환영할 것이 못 된다. 그 균열(龜裂)의 성질 여하에 따라서는 일급품 바둑판이 목침(木枕)감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큰 균열이 아니고 회생할 여지가 있을 정도라면 형겅으로 싸고 뚜껑을 덮어서 조심스럽게 간수해 둔다. 갈라진 균열 사이로 먼지나 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단속이다.

1년, 이태, 때로는 3년까지 그냥 내버려 둔다. 계절이 바뀌고 추위, 더위가 여러 차례 순환한다. 그 동안에 상처 났던 바둑판은 제 힘으로 제 상처를 고쳐서 본디대로 유착(癒着)해 버리고, 균열진 자리에 머리카락 같은 희미한 흔적만이 남는다.

비자의 생명은 유연성이란 특질에 있다. 한번 균열이 생겼다가 제 힘으로 도로 유착·결합했다는 것은 그 유연성이란 특질을 실지로 증명해 보인, 이를테면 졸업 증서이다. 하마터면 목침감이 될 뻔했던 것이, 그 치명적인 시련을 이겨내면 되레 한 급(級)이 올라 특급품이 되어 버린다. 재미가 깨를 부는 이야기다.

더 부연할 필요도 없거니와, 나는 이것을 인생의 과실(過失)과 결부시켜서 생각해 본다. 언제나, 어디서나 과실을 범할 수 있다는 가능성 —, 그 가능성을 매양 꿈무늬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다.

<중략>

과실은 예찬할 것이 아니요, 장려할 노릇도 못 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과실이 인생의 ‘올 마이너스’일 까닭도 없다.

과실로 해서 더 커가고 깊어가는 인격이 있다.

과실로 해서 더 정화(淨化)되고 향기로워지는 사랑이 있다. 생활이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릇은 아니다. 어느 과실에도 적용된다는 것은 아니다. 제 과실, 제 상처를 제 힘으로 다스릴 수 있는 비자반의 탄력 —, 그 탄력만이 과실을 효용한다.

인생이 바둑판만도 못하다고 해서야 될 말인가.

— 김소운, 「특급품」 —

* 반면: 바둑판의 겉면.

* 비자반: 비자나무로 만든 바둑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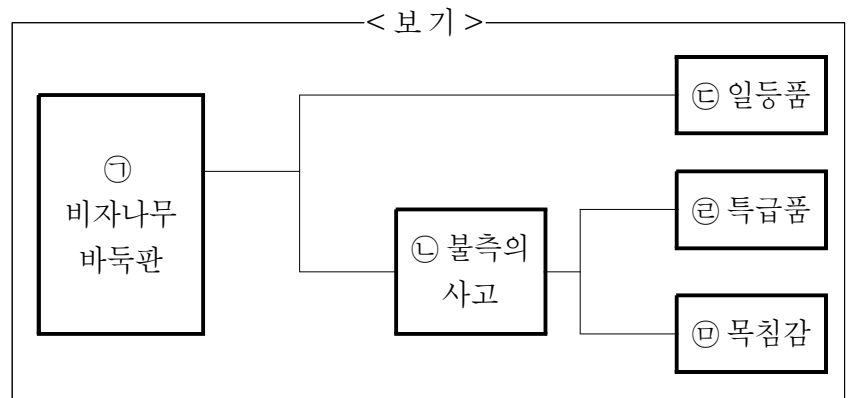
* 비자를 반재로 진중하는 소이는: 비자를 바둑판의 재료로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은.

* 진진한: 재미 따위가 매우 있는.

4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의 성질에서 인생의 교훈을 이끌어내고 있다.
- ② 현실의 세태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대상을 다각적으로 관찰하여 다양한 의미를 이끌어내고 있다.

45.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연하고 탄력이 있어 바둑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
- ② ㉡은 반면이 갈라지는 것으로 환영할 것이 못 되는 사건이다.
- ③ ㉢은 균열이 없는 비자나무 바둑판으로 치수와 연륜 등은 특급품과 같다.
- ④ ㉣은 비자반이 상처를 스스로 유착·결합하여 균열의 흔적이 사라진 상태이다.
- ⑤ ㉤은 비자반이 바둑판으로는 쓸모없게 되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